

# 신협 온(ON)뱅크 출시 2년만에 가입자 160만명 돌파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의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 '온(ON)뱅크'가 출시 약 2년 만에 가입자 수 160만 명을 돌파했다. 신협은 이를 기념해 즉시 이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2023년 3월까지 1년 연장한다.

온뱅크는 비대면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계좌 개설이 가능한 상호금융권 최초의 모바일뱅킹 앱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언택트 금융

서비스 수요에 맞는 편의성에 힘입어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월평균 가입자는 6만여 명으로, 출시 2년여 만에 160만 명을 확보했다. 예·적금 총액도 16조5천억 원(22년 3월 말 기준)을 돌파했다.

현재 온뱅크 예·적금 수신액의 31%에 해당하는 5조1천920억 원이 저율 과세 상품으로 유입됐다.

몇 차례 터치로 송금하는 온뱅크 간편 이체 서비스도 만족도가 높다. 간편 이체는 OTP, 보안카드 등 별도의 보안 매체 없이 1일 300만 원까지 계좌 송금이 가능하다. 해당 한도 내에서 100만 원까지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로 이체할 수 있다. 전체 이체 건수의 92%가 간편 이체로 이용될 만큼 인기가 높다.

기존 간편 이체 서비스에서 이체 한도가 상향된 '플러스 간편 이체' 출시로 이체 서비스의 이용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초 1회 보안 매체 인증으로 1회 500만 원, 1일 1천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온뱅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상품도 인기를 끈다. 신협 수신 평균 금리를 적용한 공통금리 전용 상품을 구성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니온' 상품, 각종 모임이나 동호회를 위한 '온(溫)모임 통장', 온뱅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 '85 마이포켓' 신용대출이 대표적이다.

신협 유니온 시리즈는 지역 신협 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비과세 혜택(이자 소득세 14% 면제, 농어촌특별세 14% 부담)을 누릴 수 있다. 기본 금리도 전국 신협 평균 예금 금리를 따르기 때문에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밖에 급여 이체 등 간단한 우대조건 만족 시 최대 0.6%의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e-파란 적금', 하루 단위로 정기예탁금(12개월) 절반 수준의 이자를 주는 파킹통장 '드림 박스' 등의 인기도 높다.

이상훈 디지털전략본부장은 "언택트 시대를 맞아 상호 금융권 최초로 비대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 온뱅크는 신협 디지털 혁신의 결정체"라며 "예·적금 간편 이체부터 모바일 신속 대출 서비스, 공제상품 가입 및 청구까지 가능한 온뱅크에 '어부바 온기'를 더해 신협만의 디지털 휴먼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1 신협중앙회  
2 신협 모바일뱅킹 앱(App) 온(ON)뱅크